

뉴사우스웨일스, 건축자산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https://www.nsw.gov.au/ministerial-releases/slashing-red-tape-to-make-heritage-sites-more-energy-efficient>

<https://www.environment.nsw.gov.au/topics/heritage/apply-for-heritage-approvals-and-permits/state-heritage-register-items/standard-exemptions>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건축자산에 속하는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에서 지역 행사를 개최하거나 영화를 촬영하는 일도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州) 유산 등록부(State Heritage Register)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단열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설치 ▲방재 및 보안 장비 설치 ▲접근성 개선 조치 ▲산불 및 토지 관리 ▲벽돌·석벽 등 건축물 재료 수리 및 교체 ▲행사 개최 및 영화 촬영(최대 90일) 등의 활동을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례로 태양광 패널은 10kW 이하로 거리(street)를 향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적절한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 30일까지 허가 면제였던 임시 사용(low-impact temporary uses) 일수도 90일로 늘었는데, 주정부는 문화적·창의적 활동을 위한 건축자산의 활용을 더욱 장려하는 동시에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페니 샤프(Penny Sharpe) 뉴사우스웨일스주 문화유산부 장관은 “역사적 건물이 단순히 ‘박물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기능과 에너지 절약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정 완화를 통해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와 수리가 쉬워지고, 건축자산을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치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Shutterstock

현대 건축과 건축자산이 공존하는 시드니 풍경